

교육실습 소감문

(가재울중학교 수학과목 담당)

컴퓨터교육과

2015년 5월 2일, 기대와 걱정을 한 아름 안고 교육실습 학교인 가재울중학교로 갔다. 다른 학교와 달리 실습시작 전 별도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고 어색하기만 했다. 8시 10분 정도가 되자 모든 교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나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교생선생님들은 모두 대학원생이라고 했다. 가재울중학교가 개교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이화여대 교육대학원과 경희대 교육대학원 학생들만이 지원을 했던 것이다. 아무래도 대학원생들이라 보니 대부분 다른 일을 하다가 와서 평균 연령은 30대 초·중반이었고, 경희대에서 온 음악 교생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여자였다.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음악, 미술, 체육을 담당하는 8명의 교생들의 교육실습이 시작되었고, 나는 1학년 4반에 배정이 되어 김은주 수학선생님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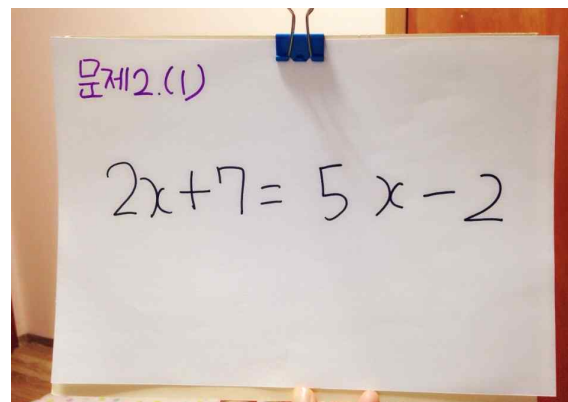


우선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학교안내 및 직무연수가 이루어졌다. 1교시 교장선생님과 2교시 교감선생님을 시작으로 하여 교무행정부, 장학연수부, 생활담당부 등 각 부서의 부장선생님들께서 한 시간씩 교생 협의실에 방문하여 연수를 진행해 주셨다. 가장 특이했던 점은 본교가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구학교 및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를 위해 모든 교실에는 전자칠판이 구비되어 있고 220대의 스마트패드가 준비되어 있었으며, 각 층에는 학년별로 교실이 모여 있지 않고 교과별로 교실이 모여 있었다. 사실 처음에는 선진형 교과교실제가 신기하게만 느껴졌었는데, 실습을 하며 직접 체험해 보니 아이들에게는 기존의 교실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자신의 담임선생님이 계신 교실에서 조회와 종례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나의 교실’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아이들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정착할 곳 없이 복도에서 서성이다보니 수업시간 외에 별도로 공부를 하거나 학급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교과교실제의 이러한 단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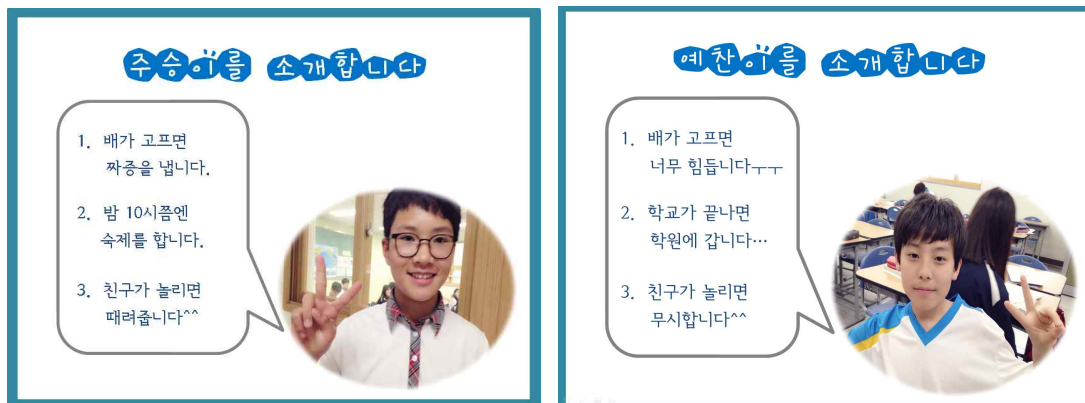
이제 직무연수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는 다양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며 수업진행의 과정과 여러 가지 수업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기본적으로 수학, 영어는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에 디지털교과서를 전자칠판에 띄워 놓기는 했으나, 나의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이 직접 스마트패드를 통한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하지는 않아서 살짝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인지 아니면 본교의 특성인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수업에서 협동학습과 학생중심의 활동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아이들의 참여 또한 높아서 참 놀라웠고, ‘교직과목을 들으며 이론으로만 배웠던 변화들이 학교 현장에 정말로 일어나고 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은 신윤경 선생님의 수학수업과 홍지현 선생님의 영어수업이었다. 두 수업 모두 대상이 1학년들이었는데, 우선 수학수업은 문자와 식 단원에서 조별로 ‘부루마블’과 비슷한 형태의 게임을 하며 일차식의 계산을 익히는 수업이었고, 영어수업은 현재진행형을 배우는 단원에서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하며 be+ing의 문법을 익히는 수업이었다. 역시나 게임을 활용하니 아이들이 즐거워하면서 열심히 참여하였고, 단순히 재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차식의 계산과 현재진행형의 사용을 많이 연습할 수 있어서 학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 나중에 나도 꼭 저런 수업을 구성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밖에도,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특정 시대의 사회모습을 담고 있는 노래를 찾아 가사와 그 시대배경을 적어보았던 박철남 선생님의 국어수업, ebs-math 사이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을 유도했던 전경숙 선생님의 수학수업도 인상 깊었으며, ‘내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도 이러한 수업을 받았더라면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주차부터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며 보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나의 담당 교과와 단원에 맞는 수업을 구상하고 학습지도안을 작성한 뒤 지도교사 선생님께 조언을 받아 드디어 나도 직접 수업진행을 시작했다. 내가 맡게 된 부분은 문자와 식 단원의 ‘방정식과 그 해’ 파트였고, 네 개의 반을 4차시씩 들어가서 총 16시간의 수업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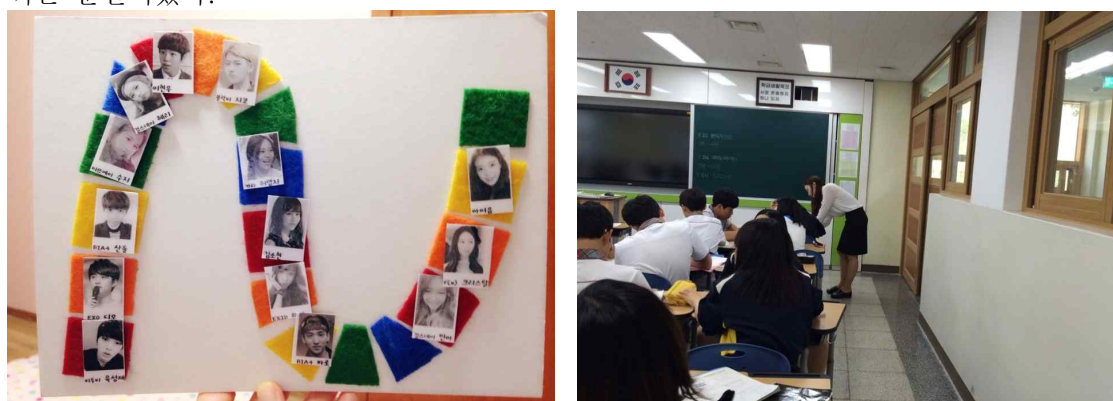
우선 1차시 수업에서는 등식, 방정식과 그 해, 항등식 등의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다양한 조별활동을 준비했다. 1,2,3,4 숫자막대를 만들어서 ‘등식인 식을 모두 찾기’, ‘항등식인 식을 모두 찾기’와 같은 선다형 퀴즈를, 주판식 문항에 대해서는 하드보드지로 답판을 만들어서 ‘도전 골든벨’ 형식의 퀴즈를 진행했다. 사실 생애 처음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어서 무척 긴장 했었는데, 막상 시작종이 치고 진행을 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고 정말 선생님이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수업을 이끌어 나갔던 것 같다. 다행히 지도 선생님께서도 나의 이러한 수업을 좋게 봐 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매우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다음 2차시에서는 등식의 성질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 방정식을 푸는 수업이었는데, 이 수업은 도입 부분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지 느낄 수 있도록 미리 각 반에서 한 명씩 골라 사진을 찍고 그들의 성격 및 특성을 몇 가지 조사하여 수업에 활용하였다. PPT화면에 반 친구의 얼굴이 등장하자 예상대로 아이들이 큰 관심을 보여서 이후 40분정도의 시간동안에도 원활한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3차시 수업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일차방정식을 푸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학생들은 대부분 문제풀이를 싫어하고 지겨워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연예인 나이순서 맞추기’ 활동을 구상하게 되었다. 활동지에 각 연예인이 출제하는 문제를 풀 뒤 해의 값이 작은 순서대로 연예인들을 나열하면 그것이 바로 해당 연예인들의 나이순서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한 팀들을 위해 초콜릿 보상도 준비했더니 아이들이 지금까지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다만,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협동하고, 연예인을 배열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했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세 개의 반에서는 활동지에서 2문제를 빼고 풀도록 수정을 해야만 했다. 5년 넘게 90분 이상의 대학수업을 듣다가 중학교의 45분 수업을 하려다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짧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4차시는 지도 선생님께서 단원종합문제를 푸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셔서 별도의 강의는 하지는 않고,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도록 한 뒤 교실을 순회하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도와주고, 많은 학생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칠판에 설명을 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30분정도 학생들을 개인별로 지도하다 보니 누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는지 더 세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총 16번의 수업을 하는 동안 느낀 점은 각 반별로 수업 분위기가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것과, 아까 언급했듯이 4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 그리고 문제풀이나 활동을 할 때 빠른 속도로 할당량을 끝낸 아이들에게 다른 할 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들 때문에 학급 전체가 소란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얼마 전 교직실무 시간에 활동을 먼저 끝낸 사람에게는 다른 아이들이 집에서 해 와야 할 숙제를 미리 풀도록 하면 시간낭비가 없다고 배웠었는데, 앞으로는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을 원활히 진행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었고, 수업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그것 또한 참 다행이었다.

나는 이번 한 달 동안 수업 외에도 매우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있었다. 조회·종례는 기본이고, 아침 등굣길 교문지도와 점심시간 급식지도도 하였으며, 특히 안산 숲 체험과 동아리활동 체험, 1시간 동안의 3학년 진로특강 진행, 학급야영 등의 행사도 있어서 정말 뜻 깊고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아침에 교문 앞에 서서 전교생을 웃으며 맞이하고, 점심 시간에 급식실에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안내하면서는 우리 반 아이들 뿐 아니라 다른 반, 다른 학년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고, 안산 숲 체험과 동아리활동, 학급야영을 하면서는 우리 반 아이들과 더욱 더 돈독해 진 것 같아 참 좋았다. 사실 교과교실제 때문에 20분 남짓한 조회·종례시간을 제외하고는 학급 아이들과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다행히 교생실습을 하는 5월에 이러한 행사가 있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중에서도 학급야영은 가장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 담임선생님께서 본인의 옷을 빌려주신 덕분에 아이들과 똑같은 반티를 입은 채로 축구 응원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캐치볼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어려운 선생님에서 벗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함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수업 외적인 활동이다 보니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





이렇게 한 달 간의 교생실습을 마치고 가재울중학교를 떠나려고 하니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수업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어도 수업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은데,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아이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다른 반이거나 심지어 내가 가르치지 않아서 복도에서만 잠깐 마주쳤을 뿐인데도 나에게 먼저 다가와 밝게 인사하며 스스럼없이 말을 걸었던 아이들, 내가 진로특강을 진행했던 3학년 4반 아이들, 4차시의 수업을 함께했던 1학년 2, 4, 6, 7반 아이들, 그리고 정이 가장 많이 든 사랑스러운 우리 반 아이들 모두 나에게서는 커다란 선물이었다. 이 아이들과 지내는 5월 한 달이 복에 겨울 정도로 무척 행복했고, 이 아이들로 인해 교사에 대한 꿈을 더욱 더 키울 수 있었다. 어른들은 보통 ‘요즘 아이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청소년들을 예의 없고 제멋대로인 문제아들로 여기곤 하는데, 내가 겪은 이 아이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하나같이 바르고 착해서 앞으로 계속 곁에서 지켜보며 케어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교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를 적대시하지 않고 살갑게 대해 준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그리고 실제로 교사가 되면 과중한 업무와 아이들 생활지도에 진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교사가 되어서 이런 행복한 감정을 자주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임용고시 준비를 하며 힘들고 지칠 때 이번 실습기간 동안의 사진을 꺼내 보며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어 얼른 다시 학교 현장으로 나오고 싶다.

